

# With You

유엔난민기구(UNHCR)는  
난민을 보호하고 영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유엔(UN)기구입니다

2024 가을호

통권 54호



**UNHCR**  
The UN Refugee Agency  
유엔난민기구

뜨거워진 지구,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유엔난민기구의 녹색 혁신

# WITH YOU

2024 가을호 | 통권 54호

### 03 편지함

김새려 신임 한국대표 부임인사

### 04 커버스토리

뜨거워진 지구,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유엔난민기구의 녹색 혁신

### 10 유엔난민기구는 지금

기후 재난 지역 긴급구호

### 12 WithYou가 만난 사람

시리아에서 제주까지, 난민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까지  
- 시리아 난민 출신 라연우 씨 기고문

### 14 WithYou, 함께하는 사람들

1,870만 장애 난민을 위한 유엔난민기구의 노력

### 16 소중한 후원이 만든 변화

### 19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후원 신청서

### 20 돋보기 : 유엔난민기구를 들여다 보다

난민 교육 현황

### 22 유엔난민기구 소식

### 24 고맙습니다

유엔난민기구 캠페인

### 표지 사진



통고나라 난민촌에서 망고나무를 심는 젊은 환경 활동가들의 손. 이들은 기후 행동을 위한 난민 연합(RCCA) 소속으로 난민촌 내에서 환경 정화 캠페인, 나무 심기, 기후변화에 대한 난민들의 인식 제고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UNHCR/Hélène Caux

## WithYou 소식지 설문 조사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더 나은 소식지 내용을 위해 후원자님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벤트 기간 내 설문 조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유엔난민기구 피규어를 보내드립니다.

**참여 기간** 2024년 11월 13일(수)

**참여 방법** 우측 QR코드 스캔 후 링크로 들어가서 이벤트 참여 완료



설문 참여

**발행일** 2024년 9월 **발행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발행인** 김새려

**제공**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민간파트너십팀 **디자인** 더디앤씨

**후원 방법** 후원 계좌 : 국민은행 407537-01-004288(예금주 : 유엔난민기구 혹은 UNHCR)

입금 후 확인 전화(02-773-7272) 부탁드립니다



### 편지함

## 안녕하세요 WithYou 독자 여러분, 유엔난민기구 신임 한국대표 김새려입니다.



WithYou 소식지 지면을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지난 8월 1일 부임한 이후 벌써 2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오랜만에 모국에서 보낸 지난 추석에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강제 실항민에게 ‘고향’은 닿고 싶지만 닿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원래 3년간의 한시적인 임무를 띠고 설립된, ‘없어지는 것’이 목표인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설립 75년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기구의 역사가 길어지고 역할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전 세계 강제 실항의 규모와 심각성이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재 2초마다 한 명이 살던 곳에서 강제로 피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강제 실항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국가입니다. 개인, 기업, 재단을 포함한 민간 영역과 대한민국 정부의 꾸준한 지원도 바로 이러한 공감에서 비롯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은 유엔난민기구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주시는 후원자와 파트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극심해진 기후 변화, 전 세계 곳곳의 분쟁과 갈등.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놓여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에 여러분이 함께 계시기에 유엔난민기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궁극적으로는 난민이 자신의 삶과 일상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임무입니다. 저를 포함한 유엔난민기구 직원들은 모두가 존엄성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해결책 마련에 힘을 보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여정에 지금처럼 늘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새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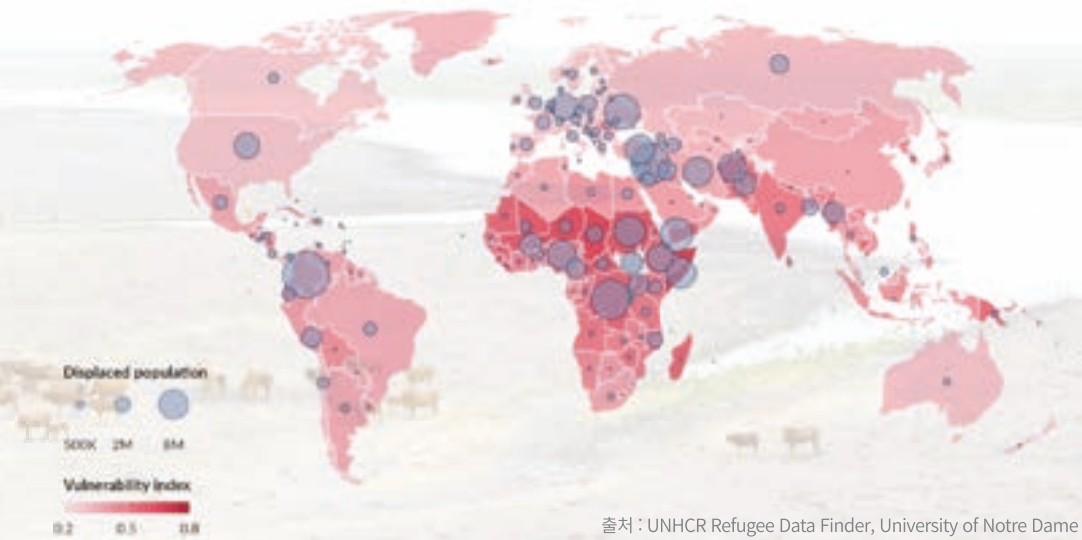


# 뜨거워진 지구,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유엔난민기구의 녹색 혁신

2024년 여름, 세계는 기록적인 폭염을 겪었습니다.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를 넘어 지구 열탕화(Global Boiling)로 가속화되는 기후 위기는 이제 우리 일상에서도 느낄 수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가량인 2,400만 명이 기후 관련 재난으로 피난했습니다. 이미 2020년 기준 3,070만 명이 기후 관련 재난으로 강제 실향 상태에 놓였습니다. 분쟁이나 폭력 사태로 강제 실향한 인구의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 기후 위기와 강제 실향의 상관관계

전 세계 난민과 실향민의 대다수는 기후에 매우 취약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 기후 관련 재난 피해 인구(2020년 기준)

분쟁이나 폭력 사태로 강제 실향한 인구의 3배가 넘는 규모의 인구인 3,070만 명이 기후 관련 재난으로 강제 실향 상태에 놓였습니다.

기후 관련 재난으로 인해  
강제 실향한 인구

3,070만 명

약 3배

분쟁이나 폭력 사태로  
강제 실향한 인구

약 1,020만 명





©UNHCR/Boris Heger



©UNHCR/Andrew McConnell



©UNHCR/Colin Delfosse



©UNHCR/Aymen Alfadi

### 기후 변화, 또 다른 강제 실항의 시작

기후 위기의 피해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입는 것은 이미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2023년 말 기준 난민 및 난민 신청자 70%가 기후 변화에 매우 취약한 국가 출신이며, 강제 실항민의 75%는 기후 관련 위험 노출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에, 절반 정도는 분쟁과 기후 위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국가에 피난해 살고 있습니다. 또 본국으로 돌아간 귀환민<sup>Returnee</sup>의 70%는 기후 위기에 매우 취약한 국가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후 위기는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려는 난민, 고국으로 돌아가 실항 생활을 끝내려는 귀환민 등 모든 강제 실항민을 또 다른 강제 실항으로 내모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

기후 위기의 영향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난민과 지역 사회, 국가, 그리고 국제사회가 함께 맞서야 하는 도전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고, 모든 강제 실항민이 겪는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 관련 위험에 대응하며, 기후 변화에 대한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엔난민기구는 인도적 지원 활동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혁신적인 방안을 고안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구호 물품의 생산과 배포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을 촉진하며, 현지 공동체와 협력하여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기후 변화 대응 기금

유엔난민기구는 전략적 기후 행동 프레임워크를 고안하고,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후 회복력 기금<sup>Climate Resilience Fund</sup>과 난민 환경 기금<sup>Refugee Environmental Fund</sup>입니다.

기후 회복력 기금은 유엔난민기구의 모든 기후 관련 활동을 통합하는 중심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정부와 민간 영역 후원이 유엔난민기구의 기후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채널로, 특정 프로젝트에 한정되지 않고 유엔난민기구의 전반적인 기후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즉, 이 기금은 새로운 재원을 모아 기후 관련 필요에 맞춘 다양한 테마별 모금 도구로 활용됩니다.

난민 환경 보호 기금은 기후 변화에 취약한 난민 보호 지역에서 재산림화와 청정 취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탄소 영향을 기록해 세계 최초로 난민이 생성한 탄소 배출권을 발급, 이를 통해 얻는 금전적 혜택을 사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고 사회적 이득을 창출하는 금융 매커니즘입니다.

###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난민촌 재조림 전



©UNHCR/Steven O'Brien

###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난민촌 재조림 후



©UNHCR/Steven O'Brien

### 인도적 지원 활동의 '녹색화'를 위한 노력

인도적 지원 활동으로 생기는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구호 물품의 제조, 포장, 운송, 배포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잉크를 갈색과 검은색으로 교체하여 탄소 배출량과 비용을 줄입니다.



#### 긴급구호 물품 사양 수정

기존 플라스틱을 100%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등 담요, 텐트, 주방용품 등 핵심 구호 물품의 사양과 제조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했습니다.



#### 현지 공급 업체와의 협력

국제 운송으로 인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구호 물품의 절반 이상을 현지 업체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또 구매한 물품이 현지 지역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공급업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 지속 가능한 포장재 사용

포장재의 양을 줄이고,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생분해성 소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주방용품을 비닐 대신 갈색 종이로 포장하고, 박스 로고 인쇄에 사용하던



#### 폐기물 절감

구호 물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관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물품 수리 및 재활용 과정에 참여하며, 물품 재질과 재활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QR 코드로 라벨에 삽입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가 이런 일도 한다고?**

**‘압력솥’과 ‘연탄’, 환경과 난민을 구하다**

매년 난민촌 안팎에서 약 2,000~2,500만 그루의 나무가 벌목됩니다. 이 중 90%는 취사 연료로 쓰입니다. 주변 나무가 깎여 나가면서 토양이 침식되어 사막화되고, 비가 오면 쉽게 산사태가 일어나는 환경이 되면서 난민촌에 사는 난민들은 또다시 안전한 생활과 생계를 위협받게 됩니다. 여성과 어린이들은 나무를 채취하기 위해 더 멀리 이동해야 하고 이 때문에 성 기반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땀감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놓고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땀감을 이용한 취사는 시간당 담배 400개비 분량의 연기를 발생시켜 호흡기에도 치명적입니다. 청정 취사 연료와 효율적인 취사도구만으로도 환경과 난민을 모두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난민촌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압력솥’**

압력솥이 방글라데시 난민촌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엔난민기구는 96만 5천여 명의 로힝야 난민이 머무는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Cox's Bazar 난민촌에 가스 연료와 함께 압력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USA for UNHCR/Nicholas Feeney

LPG(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압력솥은 연료 소모를 줄이고 조리 시간을 단축하며, 주변 환경과 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보고서에 따르면 압력솥을 제공받은 난민 99%가 압력솥을 유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난민촌에서 만드는 친환경 연탄**

카메룬의 극북 지역Far North에는 42만 7천 명 이상의 국내 실항민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기상 이변과 기후 변화와 관련된 분쟁으로 피난한 사람들입니다. 사막으로 향하는 관문이기도 한 극북 지역은 나이지리아에서 피난한 난민으로 인해 수십 년간 벌목과 이로 인한 사막화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환경 복원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미나와오Minawao 난민촌에 수십만 그루의 나무와 관목, 덩굴을 심고, 대체 에너지원 접근 촉진을 위해 친환경 연탄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활용해 만드는 이 연탄은 더 오래 유지되고 화력이 좋으면서도 연기를 적게 배출합니다. 친환경 연탄 만드는 법을 배운 난민 여성들에게는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중요한 소득원이 되었습니다.



©UNHCR/Caroline Irby



©UNHCR/Hélène Caux



**‘곤충 사육’이 가져다준 변화**

기후 위기와 식량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곤충 농업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동물과 인간을 위한 식용 곤충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곤충 농업은 천연자원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고 기존 농업에 비해 탄소 배출량도 적습니다. 또 친환경 일자리 창출, 생계 다양화, 식량 안보 개선, 지역 경제 강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세계은행과 손잡고 말라위, 케냐, 남수단 등 기후 취약 지역에서 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곤충 양식 프로젝트를 차드, 에티오피아, 우간다, 멕시코에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짐바브웨 통고가라Tongogara 난민촌에 거주하는 프란신Francine의 하루는 파리 유충인 구더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프란신은 곤충 농업 훈련을 받은 난민 17명 중 한 명입니다. 2018년 아홉 명의 자녀와 함께 콩고민주공화국

(DRC)에서 피난했을 때만 해도 몇 년 후 짐바브웨 난민촌에서 곤충을 키우며 가족을 부양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매일 곤충 사육 센터로 출근해 사육실 온도를 확인하고, 우리를 청소하고, 곤충 먹이를 줍니다. 이렇게 키운 곤충들은 프란신이 키우는 닭에게 먹일 대체 사료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곤충으로 만든 사료는 기존의 동물성 사료보다 저렴하고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닭의 체중이 더 빨리 늘어나요. 그래서 더 많은 닭을 키워서 팔 수 있고, 그 돈으로 아이들에게 옷과 신발을 사줄 수 있죠.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 기후 재난 지역 긴급구호

더 빈번해진 자연재해와 극심해진 기후 변화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방글라데시까지, 모잠비크에서 동아프리카까지 이미 취약한 이들을 더 깊은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러한 기후 재난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며, 그들이 안전하게 피난처를 찾고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아프가니스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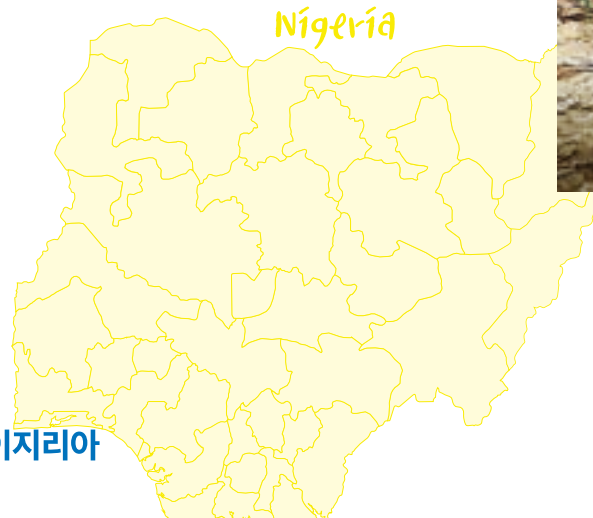
**상황** 아프가니스탄은 지난 30년 동안 대부분의 주에서 최소 한 차례 이상의 자연재해가 발생했습니다.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면서 식량과 물 부족 현상이 더욱 악화됐고, 40년 넘게 분쟁이 계속되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기반을 제대로 마련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아프가니스탄 북부, 북동부, 서부 지역을 강타한 홍수가 683명의 목숨을 앗아간 데 이어 두 달 만인 7월, 중부 및 동부 지역에 폭풍우와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최소 40명이 사망하고 340명 이상이 다쳤으며 도로, 교량, 주택 및 공공시설이 파괴됐습니다.

**지원활동** 유엔난민기구는 홍수 피해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 텐트, 담요, 물통, 가스통, 주방 세트와 양동이, 의류 등 구호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 Afghanistan



©UNHCR/Faramarz Barzin



## 나이지리아



©UNHCR

**상황** 8월 말 나이지리아 북부에 쏟아진 폭우로 사상자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당국은 185명이 사망하고 2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강제 실항민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우기는 북부는 9월, 남부는 11월까지 계속되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활동** 유엔난민기구는 파트너들은 폭우와 홍수로 피해를 입은 지역 사회에 방수포 등 긴급 구호 물품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Sahat Zia Hero

## 동아프리카

**상황** 기후 변화로 인해 동아프리카와 아프리카의 뿔과 같은 지역은 점점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 되고 있습니다. 엘니뇨로 인한 폭우와 홍수가 동아프리카 전역을 휩쓸어 난민을 포함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케냐에서는 수위상승으로 인해 다답(Dadaab) 난민촌에 거주하는 2만 명의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었으며, 부룬디에서는 전체 난민 인구 절반에 가까운 약 32,000명이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말리아에서는 국내 실항민 46,000명 이상이 홍수로 인해 강제 실항했고, 탄자니아에서는 난민 20만 명이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원활동** 유엔난민기구는 현지 당국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히 긴급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난민과 인근 피해 지역 사회 대상 보호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케냐에서는 난민들에게 방수포, 모기장, 존엄성 키트, 비누, 물통 등의 구호품을 제공하고 홍수가 잦아들 때까지 안전한 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부룬디에서는 대피소 키트와 현금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소말리아에서는 국내 실항민에게 긴급 구호 지원과 생필품을 제공했습니다.



©UNHCR/Mohamed Maalim



## 방글라데시

**상황** 방글라데시는 자연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콕스 바자르(Cox's Bazar)는 아시아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콕스 바자르 난민촌에 거주하는 95만 명의 로힝야 난민은 2017년부터 770여 건의 산사태와 홍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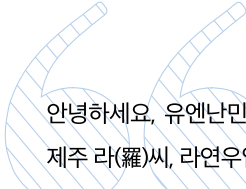
로힝야 난민은 사이클론, 홍수, 산사태 등 기상 관련 위험에 늘 노출돼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산사태로 8,000명의 로힝야 난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해 7명의 로힝야 난민이 사망했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약 1,200개의 난민 임시 거처가 파손되었고 약 2,000명의 난민이 거처를 잃었습니다.

**지원활동** 유엔난민기구는 파트너들은 생존자와 부상자들을 지원하며 손상된 숙소를 복구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난민들에게는 대피소 외에도 식량과 생활용품, 의료 및 심리-사회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지만 더 많은 지원이 시급합니다.

## Bangladesh

# 시리아에서 제주까지, 난민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까지

## 시리아 난민 출신 라연우 씨 기고문



안녕하세요, 유엔난민기구 후원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제주 라(羅)씨, 라연우입니다.

저는 한국인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피난한 난민 출신이고, 지금은 귀화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주도에서 이주민을 돕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리아를 떠날 때는 18살이었습니다. 2011년 전쟁이 터져 건강한 젊은 남성이라면 반드시 군대에 가야 했는데, 징집되어 같은 동포를 향해 총구를 겨누어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이 싫었습니다. 게다가 반정부시위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지라 저는 정부에서 무척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여성인 친구와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문란하다고 손가락질을 받았고, 다른 종교를 가진 친구를 만나도 죄인 취급도 받았습니다. 투표를 할 때도 군인들이 투표함 앞에 서서 확인하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주 해안가 플로깅 활동에 참여한 라연우 씨



©라연우 님 본인 제공 사진

전쟁과 강제 징집으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고, 해가 거듭될수록 시리아를 떠나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꿈이 가슴 한편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아를 떠나야 했을 때, 당장 갈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튀르키예로 먼저 갔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방문 비자를 받아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사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비자 만료 전에 다시 시리아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이 징집 대상인 저를 찾으러 집을 찾아왔고, 부모님이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난민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리아를 떠날 때, 시리아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 오자마자 시리아 사람이 없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시리아인이 없는 제주를 선택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 제주는 저의 고향이 되었고 새 고향의 이름을 따 제주 라 씨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난민의 이야기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곳에서 연사로 강연중인 모습 / 2023 글로벌 난민 포럼에서

©라연우 님 본인 제공 사진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한국어를 배웠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책을 보면서나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어요. 공부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새벽 다섯 시부터 밭에서 무를 뽑다가도,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이 궁금하면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한국말을 알아듣고 대화할 수 있게 되니까 사람들 상대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바리스타도 되고 아랍어권에서 온 난민들을 통역도 하고 법무부나 학교, 또는 단체들에서 강의하는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익히다 보니 한국 문화를 이해해야 했고, 한국 역사를 알아야겠다고요. 한국 역사의 출발점인 단군과 고조선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난민 인정을 받고 바로 귀화를 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인도적 체류 허가 비자를 받고 살았는데 국내에서 이동의 자유는 있었지만,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곳에 와서 정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나는 한국인이다”라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한국 사회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한국인이 되었는데도, 난민 인도적 체류 허가 비자로 살아가는 것은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도 한국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역사를 아우르는 내용이 출제되

는 귀화 시험을 보았고 2020년에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어서 외로웠고, 당시 제주는 외국인에 익숙하지 않아 낯선 시선도 많이 받았습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제주는 저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제주에서 지내면서 아는 사람들도 하나둘 생기고, 가족처럼 대해주는 따뜻한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돌아보면 제 옆에서 항상 저를 지지하고 도와주신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이주민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멘토 단에서 멘토 강사로 활동하고, 여러 학교를 찾아가 난민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및 난민에 대한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꿈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대학에 진학해 공부를 더 하고 싶기도 하고, 유튜브 채널도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활동도 계속하고 싶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진심으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저의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내 나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제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게 저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콕스바자르 난민촌의 장애 난민들을 방문하는 김광희 장애 통합 전문가 ©UNHCR



김광희 장애 통합 전문가 ©UNHCR/Saikat Mojumder

## 1,870만 장애 난민을 위한 유엔난민기구의 노력

유엔난민기구가 보호하는 전 세계 강제 실항민의 1,870만 명은 장애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3년 기준) 장애와 강제 실항이라는 두 배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난민을 위해 유엔난민기구는 다양한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코이카 다자협력 전문가(KMCO) 프로그램을 통해 유엔난민기구에서 일하게 된 김광희 장애 통합 전문가는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 Cox's Bazar 난민촌에서 장애를 가진 난민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에서, 특히 로힝야 난민 중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은 저에게 매우 의미 있는 여정입니다. 장애를 가진 강제 실항민들이 위기 상황에서 종종 소외되곤 하는데, 이들에게 실질적이고 포용적인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장애 포용을 인도적 지원의 주류로 자리 잡게 하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 덕분에 장애 포용을 위한 활동이 확대되길 희망합니다.”

방글라데시의 로힝야 장애 난민 지원 활동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 덕분에 더 큰 동력을 얻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Getty Images

는 로힝야 난민들의 인도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대응 계획 Joint Response Plan에 미화 300만 달러를 기어했습니다. 이 지원으로 유엔난민기구는 콕스 바자르와 바산 차르 Bhasan Char에서 장애를 가진 난민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 활동, 그리고 더욱 강화된 인도적 지원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 난민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더 많은 기회와 참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및 패럴림픽 난민팀은 유엔난민기구의 파트너십 노력의 성과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국제 올림픽위원회(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올림픽 난민 재단(ORF)과 함께 올림픽 및 패럴림픽 난민팀을 결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리우 패럴림픽에 사상 최초로 장애 난민 선수 2명이 출전한 이래, 2024 파리 패럴림픽에는 역대 최다인 8명의 난민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파리 패럴림픽에서는 자키야 쿠다다디 Zakia Khudadadi 선수가 태권도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난민 선수단 최초로 패



럴림픽 메달을 수상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장애를 가진 난민의 의지와 회복력을 지원하는 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이들이 소외받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유엔난민기구 장애 난민 지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 필요한 것 찾기**  
 먼저,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를 가진 난민들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꼼꼼히 조사합니다.
- 데이터 모으기**  
 어떤 지원이 효과적일까요? 유엔난민기구는 장애 난민에 대한 장애별 분류 데이터를 모으고 검증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교육과 훈련**  
 장애 포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유엔난민기구는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 기관, 그리고 장애를 가진 난민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 인식 높이기**  
 장애를 가진 난민들의 권리를 알리기 위해 유엔난민기구는 다양한 워크숍과 행사도 진행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 파트너십 강화**  
 전문 단체들과 유엔 기구, NGO, 정부 기관 등 다양한 단체들과 협력하며 장애를 가진 난민들을 위한 환경을 더 포용적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이 전 세계 곳곳에 가져온 희망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Rokada/Anastasiia Sokol

##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주민

“저는 혼자 살고 있고 기술을 이용하는 게 어려워서 이웃들이 공습경보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알려주곤 합니다. 7월 8일 이웃들이 저를 대피소로 데려갔어요. 한 번은 폭발음만 들렸고, 네 번은 너무 강력해서 대피소 벽이 흔들릴 정도였어요. 저는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제 나이에, 특히 혼자 사는 사람에게서는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공습이 끝나고 대피소에서 나와 집에 왔는데 유리창은 깨지고 집은 무너져 있었지요. 한 가지 생각만 들었어요. ‘살아 있어서 다행이다.’ 여러분의 지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웃들이 여러분이 주신 자재로 창문 수리를 도와 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고 다가오는 겨울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나줄라

## 나줄라, 아프가니스탄 귀환민

“유엔난민기구가 지어준 온실에서 오이를 재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덕분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4년 전 파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온 그는 가족들을 부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전에는 석류밭에서 일했지만, 수입이 거의 없었어요.” 유엔난민기구와 파트너 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이 프로젝트에서 나줄라를 포함한 마을 주민들은 연중 농작물과 꽃을 재배할 수 있는 온실 사용법 및 농작물 재배 기술 교육과, 태양열 패널, 물 펌프, 수레, 삽, 씨앗 등 필수 도구를 지원받았습니다. “오이를 재배해 하루에 약 200 아프가니스탄 루피(약 3달러)를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수입은 우리 가족들을 부양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아프가니스탄

나줄라씨의 아이들



©UNHCR/Mushtaq Ahmad Munawarzada



비차르



**비차르, 수단 난민**

“위생 수건과 비누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학교에 결석하지 않게 해주는 중요한 물품이에요. 덕분에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는 데 집중할 수 있어요.” 비차르와 같은 소녀들은 비누, 위생 수건, 속옷이 들어 있는 위생 바구니를 지원받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소녀들이 학교에 꾸준히 출석하고 참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UNHCR/Eric Bakuli

수단

무나라

**무나라, 수단 국내 실향민**

수단 국내 실향민 무나라가 새 임시 거처를 받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직원이 다가오자, 수단의 전통 축하 노래인 자그루다(zaghrouda)를 부르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지난 7월, 수단의 국내 실향민 거주지가 폭우로 물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집중호우로 여권, 주민등록증과 같은 필수 서류는 물론 식량, 담요, 옷 등 소지품이 유실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파트너 단체와 함께 피해 복구를 위해 현장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UNHCR/Alejandra Romo



# 마음 더하기+

동아프리카 식량 위기로 고통받는 난민들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더해주세요!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신 뒤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문자(1666-5397)로 보내주세요.

**기본 정보**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휴대전화번호 \_\_\_\_\_

기존 등록 정기 계좌/카드에서 1회 추가 후원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 기존 정기 후원자가 아니거나 다른 납부 방법(간편결제, 가상계좌 등)으로 참여 원하시는 경우 하단 QR로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

일시후원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일시 후원 출금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기재 정보는 후원자 확인 및 일시 후원 확인을 위한 문자 발송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후원 금액**

- 5만 원으로 에티오피아에 20kg 쌀 한 포대를 지원합니다.
- 10만 원으로 수단 난민 20명에게 하루치 식량을 지원합니다.
- 30만 원으로 피난 끝에 경유 센터에 도착한 난민 15명에게 이틀간 두 끼니씩 지원합니다.
- 50만 원으로 가장 필요한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난민 2가정에 3개월 치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기타 \_\_\_\_\_ 원(1회)

신청일 \_\_\_\_\_ 신청자 \_\_\_\_\_ (서명 또는 인)

\* 본 후원은 일시 후원 신청입니다. 후원금은 신청 후 약 10일 이내에 1회만 후원됩니다.

**QR 코드로 빠르게 참여하기**

우측 QR로 신청 시 가상계좌나 간편결제(Npay, 카카오페이)를 통한 일시 후원이나 정기 후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난민 어린이 및 청소년의 교육 상황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후원자님 질문

유엔난민기구에 궁금한 모든 것  
돋보기에 물어봐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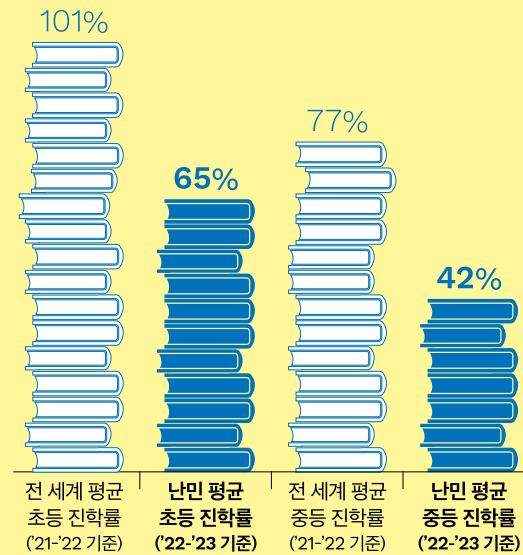
질문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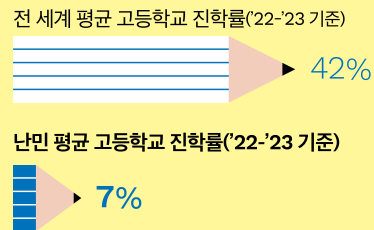
### A 난민 아동 교육 현황

학령기 난민 아동의 51%가 교육에서 소외돼 있습니다.

#### 난민 아동 진학률



#### 난민 청소년 고등학교 진학률



### 교육은 난민 아동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르완다 키지바(Kiziba) 난민촌의 아마호로(Amahoro) 고등학교 6학년 학생들인 자닌카(Zaninka), 프랭크(Frank), 투이시메(Tuyishime), 디우 메르시(Dieu Merci).

난민촌에서 태어난 투이시메와 자닌카, 키칼리에서 태어난 디우 메르시,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태어난 프랭크.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 네 명은 모두 콩고민주공화국(DRC) 출신으로 르완다에 거주하는 난민입니다. 르완다 난민들은 국가 교육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지만, 양질의 교육을 받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민촌이나 인근 지역의 학교들은 교실이 부족해 과밀 상태이고, 화장실, 실험실, 도서관 같은 기본 시설 또한 부족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난민들이 인도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학용품이나 교복을 구매하고 급식비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합니다.



1996년에 설립된 키지바 난민촌은 르완다에서 가장 오래된 난민촌으로, 현재 15,793명의 난민과 난민 신청자가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키지바 난민촌에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가 있으며, 2023년 11월 기준 2,856명의 어린이가 초등학교에, 1,136명이 중등학교에, 418명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자닌카 “제 꿈은 경찰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경찰이 되어 도움을 주고 싶어요.”

프랭크 “공부하는 사람이 기회를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저는 좋은 미래를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있어요.”

투이시메 “저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좋은 조력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가난과 싸워 이기고 싶어요.”

디우 메르시 “제가 어릴 적 상상했던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엔카콜레(Enhakole)는 2010년 어머니와 형제자매들과 함께 르완다를 떠나 우간다에 왔습니다. 시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엔카콜레는 유엔난민기구와 비영리 단체인 에듀케이트 어 차일드(Educate a Child)의 지원을 받아 초등학교 교육을 마쳤습니다. 엔카콜레는 중등학교에 진학해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 지원을 받아 초등학교 교육을 마쳤습니다. 엔카콜레는 중등학교에 진학해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열정을 펼칠 수 있는 공간과 자원이 생겼으니 언젠가 제가 유명한 예술가가 될지도 모르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나이호스(Nyehoth)가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Education cannot Wait의 지원 덕분에 유엔난민기구와 초등 교육 파트너인 LWF는 케냐 Ifo2 난민촌에 학교를 개보수하고 화장실을 건설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51,000명이 넘는 난민 학생들이 다담(Dadaab) 난민촌과 Ifo2 난민촌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 유엔난민기구는 난민의 교육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유엔난민기구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초등 및 중등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금 보조금, 교사 역량 강화, 안전한 학습 공간 확충, 주요 교육 파트너와의 파트너십 강화 등을 통해 교육 장벽을 해소하고, 전 세계 난민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파란학사모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고등 교육 지원 프로그램 ‘파란 학사모’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에 함께 해주시면 난민의 대학 교육 또는 기술 교육을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파란학사모 캠페인 소개

이 캠페인은 재능과 열정을 겸비한 난민 학생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졸업 후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지역 사회와 국가 재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현재 7%에 불과한 전 세계 난민 대학 진학률을 2030년까지 15%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유엔난민기구 소식



글로벌 소식 더보기  
(영문)

## 글로벌

### 역사적인 첫 메달로 기억될 난민 대표팀의 2024 파리 올림픽

제33회 하계 올림픽이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처음 난민팀을 구성한 이래 가장 큰 규모였던 이번 올림픽에서 난민팀 선수들은 결승전 출전, 개인 최고 기록 경신, 첫 메달 획득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록을 세웠습니다.

난민팀에게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복싱에 출전한 신디 응감바(Cindy Ngamba) 선수의 메달 획득 소식이었습니다. 응감바 선수는 여자 75kg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올림픽 난민팀 최초로 시상대에 오른 선수로 기록했습니다.



©David Burnett/IOC



©UNHCR/Elif Gülec



©Alexandre Battibugli/IPC

“난민 선수 최초로 메달을 뒀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의미입니다. 전 세계 난민에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신을 믿으면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디 응감바(Cindy Ngamba)

파리 올림픽의 뜨거웠던 열기는 패럴림픽으로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8명의 선수들과 2명의 가이드 러너로 구성된 역대 최대 규모의 패럴림픽 난민팀 선수들은 약 1,800만 명의 장애인을 포함한 전 세계 강제 실항민을 대표하여 육상, 역도, 탁구, 태권도, 철인 3종, 펜싱 등 6개 종목에서 활약했습니다. 자키아 쿠다다니(Zakia Khudadadi) 선수가 태권도 여자 47kg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패럴림픽 난민 대표팀 사상 첫 메달을 안긴 데 이어, 기욤 주니어 아탕가니(Guillaume Junior Atangana) 선수가 남자 육상 400m 경기에서 개인 최고 기록으로 3위를 차지하며 패럴림픽 난민 대표팀에 역사적인 두 번째 메달을 안겼습니다.

“전 세계 난민을 대표하는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될 수 있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키아 쿠다다니(Zakia Khudadadi)

## 글로벌

###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올림픽 월계관상 수상

스포츠의 힘으로 난민과 강제 실항민들의 삶을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아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가 지난 7월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유엔난민기구를 대표해 올림픽 월계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림픽 월계관상은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가 스포츠를 통해 교육, 문화, 개발, 평화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개인에게 주는 특별한 상으로 매회 하계 올림픽 개막식에서 수여됩니다. 이번 수상으로 그란디 최고대표는 올림픽 월계관의 세 번째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IOC/Greg Martin

“저는 스포츠가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느끼게 하며, 동기를 부여하고, 다시 희망을 찾도록 돕는지 보았습니다.”



영상 보러 가기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 한국

### 김새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신임 대표 부임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신임 대표에 김새려 대표가 임명되었습니다. 김새려 대표는 전 유니세프 중국 사무소 정부 협력 부문 선임 자문관, 유엔인구기금 중국 사무소 지역 파트너십 자문관, 유니세프 뉴욕 본부 정부협력국 정부 협력 담당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새려 대표는 지난 8월 외교부에 신임장을 전달하고,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로서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UNHCR

### 유엔난민기구-코이카, 에콰도르 난민 및 지역사회 지원 사업 성황리 종료

지난 8월 21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과 지난 3년간 공동으로 이행한 <에콰도르 난민 및 지역사회 대상 보호 및 통합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회가 주에콰도르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열렸습니다. 심재현 주에콰도르 대한민국 대사, 강황욱 코이카 에콰도르 사무소장, 에콰도르 외교부에서 참석해 사업의 성과와 함께 지원을 받은 난민의 이야기를 청취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에콰도르의 수천 명의 난민, 이주민, 그리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필수 보호 뿐만 아니라 보건 시설 및 청소년 센터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통합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인도적지원-개발-평화 연계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UNHCR



# 피난길 위 성범죄에 노출되는 여성들과 소녀들



전쟁과 학대를 피해 피난길에 오른 여성과 소녀들이  
성폭력,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안전한 피난처, 트라우마 치료,  
자립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상처를 회복하고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QR 코드를 스캔하여 후원해  
주시면 난민 여성 보호의 의미를 담은  
**달빛 리플렉터 스트랩**을 드립니다

유엔난민기구



전화 02-773-7272 (기업후원 02-773-7075) 이메일 withyou@unhcr.or.kr 홈페이지 unhcr.org/kr

블로그 blog.naver.com/unhcr\_korea 해피빈 happylog.naver.com/unhcr

후원계좌 국민은행 407537-01-004288 (예금주: 유엔난민기구 혹은 UNHCR)

주소 (우)0463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10 서울N스퀘어 5층 유엔난민기구

Print using soy ink — 유엔난민기구는 환경보호를 위해 콩기름 잉크를 사용합니다.

